P9

Propylthiouracil 복용 후 발생한 미만성 폐포성 출혈이 동반된 ANCA 양성 사구체신염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박선만 · 송원준 · 김영진 · 김재현 · 서장원 · 박태진

A Case of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positive Glomerulonephritis with diffuse alveolar hemorrhage Associated with Propylthiouracil Treatment

Sun Man Park, Won Jun Song, Young Jin Kim, Jae Hyun Kim, Jang Won Seo, Taeji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Kidney Research Institute

서 론: Propylthiouracil (PTU)은 그레이브스 병과 같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이용되는 thionamide 계열의 항갑상선제로서 흔한 부작용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피부발진, 발열, 관절통 등의 과민성 반응이며 이외 미만성 탈모, 무과립구증, 혈관염, 약제 유발성 루프스 등이 있다. PTU 복용으로 ANCA 양성 혈관염을 보이면서 급성 사구체신염이 발생한 증례와, 또한 미만성 폐포성 출혈이 발생한 증례는 드물게 보고가 되었지만, 저자들은 한 환자에서 ANCA 양성 사구체신염 및 미만성 폐포성 출혈이 동시에 병발하여 PTU 중단 및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후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내원 4년 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PTU를 복용하던 48세 여자 환자가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전신쇠약과 구토로 내원하였다.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발열, 오한, 설사, 복부 압통 등의 소견은 없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3,490/mm^3, 혈색소 8.4 g/dL, 혈소판 289,000/mm^3, 혈중요소질소 78.4 mg/dL, 혈청 크레아티닌 9.1 mg/dL, 총단백 7.3 g/dL, 알부민 3.5g/dL, AST 20 IU/L, ALT 8 IU/L, 소변 검사에서 단백 3+, 적혈구 1-4/HPF, 백혈구 10-19/HPF이었으며 단회 소변 단백/크레아티닌 비는 4.31 mg/mg이었다. HBsAg, anti-HCV Ab, ANA, Anti-GBM Ab는 음성이었고, C3, C4, IgG/M/A는 모두 정상범위였다.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박출률은 37%, 전반적인 좌심실벽의 운동감소증이 관찰되었다. 신조직검사 예정이었으나 심한 저산소증을 동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당시 흉부 X-선 사진에서 양 폐하에 침윤 소견이 관찰되어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생각하여 이뇨제 투여 및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증상의 호전 없이 양 폐하 병변 진행하여 시행한 기관지경술에서 양측 폐의 출혈과 흉부 고해상전산단층촬영에서는 넓은 범위의 경화성 병변 및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었다. 이후 나온 결과에서 p-ANCA 양성, Anti-myeloperoxidase antibody 86.2 units (정상 <20 units)이어서 PTU에 의한 ANCA 양성 사구체신염, 미만성 폐출혈로 진단하여 PTU 중단 및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시작하였다. 충격 요법 6일째에 시행한 신조직검사에서 광학현미경상 10개의 사구체중 8개는 전체경화, 나머지 2개는 분절경화가 관찰되었다. 세뇨관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으며 섬유화를 보이는 사이질에는 중등도의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충격 요법 7일째 시행한 흉부 고해상전산단층촬영에서 양 폐하 침윤 병변은 호전되었다. 23일째 혈정 크레아티닌은 2.9 mg/dL로 감소하였다. 환자는 별다른 증상 호소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결 론: PTU 복용 중에 ANCA 양성 사구체신염과 미만성 폐포성 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의심이 될 경우 PTU 중단 및 조기 스테로이드 치료가 중요하다.

Key Words: 프로필티오우라실, 항중성구 세포질 항체, 사구체신염
Propylthiouracil, ANCA, Glomerulonephritis